

종합

# 물바다에 불바다... 日 열도 '아비규환'

## 140년만의 대지진...선박·활주로 등 침수

## 투에니원·카라 등 日진출연예인 안전 비상

11일 오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일어난 강진은 일본 전역에서 큰 피해를 낳았다. 도호쿠 지방과 도쿄 부근 이바라키(茨城)현 연안에는 최고 높이 10m의 쓰나미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와 선박은 물론 건물까지 역류한 바닷물에 휩쓸리는 모습이 관측됐다.

○도호쿠 지방 최대 도시인 센다이시의 피해가 컸다. 센다이시에서는 화재가 잇따랐고, 쓰나미 피해도 작지 않았다. 센다이만과 가까운 센다이공항은 활주로까지 침수됐고, 승객들이 공항 빌딩 옥상으로 대피한 모습이 NHK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시민들은 “불과 며칠 전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무슨 일이나”며 얼굴이 새파래진 채 휴대전화로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은 서로 부둥켜 안거나 길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지진이 일어나자 미야기현 청사의 직원들이 울부짖는가 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복도에 물이 넘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으로 여행을 온 관광객들도 현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 지역 항공 회사인 스프링에어는 공항으로 향하던

160명 이상의 관광객과 10명 이상의 직원이 강진 발생으로 일본 현지에 갇혀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 강진에 따른 쓰나미 경고를 발령하는 동시에 필리핀 동부 해안 인근에 거주하는 수천명의 주민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다. 필리핀 화산·지진학 연구소는 쓰나미의 첫번째 파도가 이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동부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연예인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첫 싱글 프로모션 차 일본에 머물고 있는 투에니원은 안전이 확인됐다.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도 “전화로 두절돼 일본 스태프가 휴대전화 SNS(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멤버들이 안전하다고 알려왔다”며 “내일 오는 일정인데 공항이 폐쇄돼 돌아올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콘서트를 여는 김정훈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 김정훈 측은 “김정훈과 동행한 매니저와 전화 통화가 안 된다”며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타는 화학공장**  
11일 오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일어난 대규모 강진으로 도쿄 인근 이차가와 화학단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 '규모 8.8' 세계 역대 7번째

## USGS, 7.9→8.8로 조정...100년간 8.0 이상 9건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8.8로 지금까지 측정된 지진들 가운데 7번째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예초 규모 7.9의 지진이 오후 2시 46분 23초(현지시간) 도쿄 북동쪽 373km, 혼슈(本州) 센다이 동쪽 130km 해상의 지하 24.4km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USGS는 추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지진의 규모를 7.9에서 8.8로 조정했다.

지진 규모 8.8는 USGS의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발생한 지진 가운데 7번째 강력한 지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발생한 '발디비아 지진'으로 규모가 9.5였으며, 이 지진으로 1655명이 숨지고 3000명 이상이 다쳤고 200만명이 주거지를 잃었다.

또 이 지진 후 발생한 쓰나미로 하와이에

서 61명이 숨졌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도 각각 138명과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규모 면에서 2위를 기록한 지진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1964년 발생한 지진으로 규모가 9.2였으며, 2004년 수마트라-안다만 제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1906년 1월 에라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규모 9.1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 9.0 이상을 기록한 것만도 모두 6차례다.

지난해 2월 칠레에서 발생한 524명의 사망자와 30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낸 지진도 규모 8.8로 이번 지진의 진도와 같다. 칠레 지진은 1906년 1월 에라도르에서 발생한 지진과 함께 이번 일본 지진에 이어 공동 7위에 해당한다.

USGS 기록상 규모 면에서 상위 20위에 드는 지진들 가운데 19건이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근 100년간 8.0이 넘는 규모의 초강력 지진은 이번 일본 지진을 포함해 모두 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한반도 비켜간 지진파... "국내 안전"

일본에서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인접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강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희일 지진연구센터장은 11일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곳여서 이들 판의 충돌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이번 지진도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충돌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0km 가량 떨어진 유라시아판의 안쪽에 있어 지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일본에서 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더라도 지진파가 진행하면서 그 에너지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번 지진파는 이미 별 영향없이 한반도를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박충화 대전대학교 지반설계정보공학과 교수도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대부분 태평양판의 운동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이와 크게 관련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도-호주판과 유라시아판 충돌의 영향을 더 염려해야 하는데 이들 판은 서로 밀접하게 붙어 대립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판의 충돌에 따른 지진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일본 정치권 휴전

일본 정치권은 동북부 지방의 강진과 대형 쓰나미 피해와 관련해 정치 휴전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지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증유의 대지진이다. 영상을 통해 볼때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당으로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대지진 긴급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우리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협력하겠다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을 통해 볼때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당으로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대지진 긴급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우리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협력하겠다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원인은 환태평양 '불의 고리'

## 인나·말레이시아·뉴질랜드·북남미 해안 여파

지난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11일 일본 동북부 해안에서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태평양양의 가장자리에 있는 국가 인근에서는 육지와 해저를 가리지 않고 지진과 화산폭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재해도 반복되고 있다.

◇역사적 대형 지진·화산폭발, 환태평양서 발생 = 2004년 12월 남아시아에서 2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도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하는 등 근대 역사상 극심한 자연재해 다수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06년 4월 규모 8.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 인근 지역에서 건물 붕괴와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3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5년에 발생한 일본 한신(阪神) 대지진(고베 대지진)은 물론, 지난해 1월 중미 아티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 약 한 달 뒤인 2월 칠레 콘셉سیون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3의 강진도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 엔화·주가 폭락...아시아 경제 직격탄

일본 도호쿠(東北) 부근 해저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11일,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아시아 주요 증시가 급락하는 등 아시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83.29엔을 기록, 82.80엔을 기록했던 2월 22일 이후 엔화 가치가 가장 낮아졌다.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도 전날보다 179.95포인트(1.72%) 하락한 10,254.43, 토픽스지수는 15.33포인트(1.65%) 내린 915.51로 마감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예상보다 높게 나온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다 뉴욕 증시의 주가 급락과 국제 유가 상승 압력 등 각종 악재에다 일본발 지진 소식까지 겹치면서 동반 급락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23.34포인트(0.79%) 하락한 2,933.79, 상하이A주는 24.57포인트(0.79%) 내린 3,071.78로 마감했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26.04포인트(1.31%) 내린 1,955.54로 장을 마쳤다.

홍콩 증시도 이날 오후 현재 0.6%가 떨어졌고 대만증시도 75.08포인트(0.87%) 하락해 8,567.82로 장을 마쳤다. 필리핀 증시 역시 35.39포인트(0.9%)가 떨어졌다. /연합뉴스

# 시설

##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춘 법조개혁 이뤄져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조 개혁안이 공개되자 법조계가 시끄럽다. 특히 검찰은 발표 하루 만에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혁위의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판·검사 전담제에 관한, 경찰 수사권 독립 등 굵직한 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하나같이 해당 기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항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사법개혁을 원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잇달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추락했다. 아마추어 법원과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해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이런 의미에서 법조개혁은 법원과 검찰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법조개혁이 무엇보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법제화 과정은 국민의 법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방향에서 전개돼야 한다. 법원이나 검·경 등 개혁 대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이번 개혁안이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있고 정치인 보신과 보복성 개혁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 등 당사자들도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되지 말고 왜 이번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자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아무췌록 앞으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모아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지 바란다.

## 법도 '눈물'을 인정한 베트남 부부의 사연

법에도 눈물은 있다. 불법 체류로 검거돼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투안씨가 주위와 법무부의 도움으로 아내의 출산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돼 후후한 감동을 주고 있다.

투안씨는 부인의 출산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던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던 광주 하남공단에서 단속에 적발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감호 조치됐다고 한다. 부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산할 때까지만이라도 남편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남편이 강제 출국을 당해도 단속의 품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어 남편과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은 투안씨에게 환한 미소를 안겨줬다. 한 나라당 이점현 의원과 외국인근로자보호센터가 새 생명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이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투안씨의 딱한 사정을 이구남 법무부 장관에 알려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즉시 투안씨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베트남 지인들은 보증금 300만 원을 모아 관리소에 납부, 투안씨의 석방을 도왔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이 11만 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수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법은 그 잣대에서 예외란 있을 수 없지만 인권과 인성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투안씨의 사연과, 법적인 배려는 누가 뭐래도 감동적이다. 오는 6월께 아내와 함께 화센터가 새 생명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이다. 이 의원은 10

## 야권연대 20일까지 협상 완료

야권은 4·27재보선 야권단일화 협상을 오는 20일까지 완료키로 합의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4당'과 희망과 대안, 시민주권, 한국진보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등 4개 시민정치운동 대표들은 11일 회동 후 보도자료를 내고 "4·2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연합과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보다 진전된 정치연합을 이루자는 데 동의했으며, 다만 각 당과 지역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타결 방안을 찾기 위하여 몇 차례 더 회의를 하되 3월20일까지는 협상을 타결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의 재보선 대결구도는 이달 중순이 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순천의 경우 민주당의 무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민노당이 양보를 요구하고 후보를 내놓은 상태. 하지만, 시민사회계에서 민노당 후보의 경쟁력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 후보를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목포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목포시의회 박정훈(민주·51·라 선거구) 의원이 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돼 오는 4월27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11일 전남고선관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자신의 선거구인 만호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수신 권을 발송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4·27 재보궐선거 지역은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화순군수 재선거, 목포시의원 라 선거구 재선거 등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奎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